

<수정광산 팀 인터뷰>

안녕하세요. 성신미러사 허나운 기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당 인터뷰는 오는 8월 29일 발간될 미러지 250호에 기고될 예정이며 9월 새롭게 오픈하는 성신여대 자체 커뮤니티 '수정광산'과 관련하여 기획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는 총 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4~6줄(4~5문장) 이내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1. 성신여대의 아이덴티티와 니즈를 반영한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수정광산' 제작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팀원분들의 의견이 모이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는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Q2. 수정광산 기획단 분들이 오로지 성신여대 재/휴학생, 졸업생 분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자 전공을 살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또 현직에 계신 분이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Q3. 상하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제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정광산 기획단 분들의 팀워크가 빛났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Q4. 최근 디지털 의존도가 더욱더 높아지면서 각종 커뮤니티와 공유 플랫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커뮤니티, 그리고 타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수정광산'만이 가지는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5. 학생 신분인 팀원 분도 계시고 각자 개인적인 용무가 있으실 텐데, 향후 '수정광산' 플랫폼 운영 및 유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6. 기획단 분들의 노고와 노력이 담긴 '수정광산'이 교내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신여대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편 기획단 여러분들은 '수정광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배웠는지 궁금합니다.

Q7. 앞으로 '수정광산'이 성신여대 수정이들에게 어떤 존재, 어떤 공간이 되길 바라는지 궁금합니다.